

“본격적으로 수행은 하고 싶은데... 책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재가불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많은 재가불자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수행법별로 전문가를 대신 만나 물어보겠으면...’

본지가 이런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독자와 함께 나섰다. 각 수행법의 핵심과 구체적인 행법을 매월 한차례 지면에 담는다. 첫 회는 ‘선(禪)을 그려, 선(禪)을 본다’는 사불(寫佛)수행. 사불수행 2년차 이현순(54·경기 마석), 초참자 김영숙(45·경기 광명) 씨가 3월 16일 사불수행연구회 부회장 법인 스님(서울 공덕사 주지)을 찾아 ‘사불수행의 근간’을 물었다.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① - 사불(寫佛) 수행

線을 그려 禪을 본다



울초 사불수행을 시작한 김영숙 씨(왼쪽)가 법인 스님에게 사불수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속의 그림은 이현순 씨(가운데)가 지난 동안기 기간동안 매일 관세음보살사불지.

면 길을 달려왔다. 새벽 6시에 경기 마석의 집을 나서 서울 구로구 공덕사까지 오는 데만 4시간이 걸렸다. 왜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았을까? 그것도 100일간 한 장씩 그린 ‘관세음보살사불지’를 양손에 들고서.

이유는 간단했다. 법인 스님을 뵈자마자 이현순 씨가 묻는 질문에서 그 까닭을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다.

호흡 깊고 길게...감정 이입 금물 어머니 생각하듯 불보살 관해야

“큰 선을 그릴 때 붓끝이 흔들려요. 호흡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호흡을 깊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흡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이 불자님의 호흡이 짧아서 그래요. 큰 호흡을 가지려면, 복식호흡을 해야 해요.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깊게 들어 마시고 깊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사불을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호흡을 놓치는 일이 있는데이요?”

“그때그때 호흡을 쟁기세요. 깊게 들이신 숨을 복부의 단전까지 끌고 내려가세요. 급하지도 늦게도 않게요. 그러면 자기 호흡을 잘 가다듬으세요. 그런 다

“본격적으로 수행은 하고 싶은데... 책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재가불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많은 재가불자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수행법별로 전문가를 대신 만나 물어보겠으면...’

본지가 이런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독자와 함께 나섰다. 각 수행법의 핵심과 구체적인 행법을 매월 한차례 지면에 담는다. 첫 회는 ‘선(禪)을 그려, 선(禪)을 본다’는 사불(寫佛)수행. 사불수행 2년차 이현순(54·경기 마석), 초참자 김영숙(45·경기 광명) 씨가 3월 16일 사불수행연구회 부회장 법인 스님(서울 공덕사 주지)을 찾아 ‘사불수행의 근간’을 물었다.

“큰 선을 그릴 때 붓끝이 흔들려요. 호흡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호흡을 깊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흡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이 불자님의 호흡이 짧아서 그래요. 큰 호흡을 가지려면, 복식호흡을 해야 해요.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깊게 들어 마시고 깊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사불을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호흡을 놓치는 일이 있는데이요?”

“그때그때 호흡을 쟁기세요. 깊게 들이신 숨을 복부의 단전까지 끌고 내려가세요. 급하지도 늦게도 않게요. 그러면 자기 호흡을 잘 가다듬으세요. 그런 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 내가 죽거든 조문객이나 부의금을 받지 말라

울초의 일이다. 불교계 신문을 뒤적여다 가 한쪽 구석의 아주 신선한 기사에서 눈길이 머물렀다. 한적한 토굴에서 혼자 열반한 초삼 스님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 평생 울곧은 수행자로 살다가 다비식마저 이는 몇몇 스님네가 모여 조출하게 치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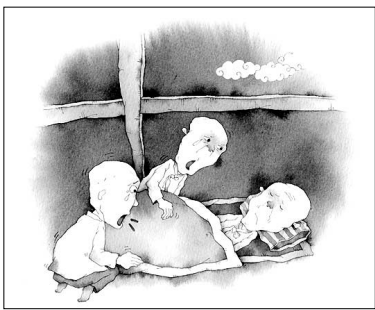
나 상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불법의 가르침도 아니며 나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마친가지로 똑같이 모두 단정히 앉은 채로 좌선을 하라. 내가 간 이후에도 다만 법에 의지해 수행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하라.”

20~30대 시절에는 화려한 다비식이 잔칫날처럼 좋아보였다. 총림에 오려 머문 탓으로 많은 다비식을 치렀고 또 다른 사찰의 영결식장에 더러 가보기도 했다.

이 부분은 선종(禪宗)의 장제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원문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하다. 우선 울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생사불이(生死不二)’이기 때문이다. 조문이나 부의금도 받지 말라고 했다. 민폐가 되기 때문이다. 상복도 입지 말라고 했다. 지금은 문도들이 가사를 수하지 않으나 보던 옛날 ‘국장(國葬)’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의 거리를 만장대열과 꽃상여로 장엄한 영암 스님 다비식이 출가 이듬해 처음 본 절집 장례식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옛날 ‘국장(國葬)’ 수준이었다.

그걸 보고서는 대뜸 ‘나도 열심히 수행해 큰스님이 되면 저런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지’ 하고 철없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후 많은 큰스님

장상차림으로 조문객을 받는 것으로 거의 정착화 되었다. 현재 제대로 지켜지는 건 이것 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다비식 이후에도 스승이 살아있는 것처럼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점이다.

육조혜능 “울지말고 상복도 입지 마라” 당부 가르침에 어긋나는 다비장 객비로 속앓이

들의 장례식도 거의 그 정도 규모였다. 하지만 절집에 사는 행수가 늘어가면서 그런 다비식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산중 대중과 문중 식구들의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비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객비’는 그 전체 액수의 거대한을 말할 것도 없거나 나누어주는 일도 늘 격정이었다. 그 장면은 언제나 거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비식 이후 문도간의 불협화음, 재산권 분쟁, 그리고 최근 모 유족원의 폐쇄 등에서 보듯 스승의 뜻과는 심판 판권리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도 심심찮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스승의 유지와 가풍은 가능한 한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조문객도 맞이하지 말고 부의금도 받지 말라고 하였으니 무슨 객비를 나누어 줄 일이 있었는가. 다비장 객비 피해가 심하다보니 종단의 원로 어른들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거의 한계치에 온 것 같다. 어른의 복과 덕을 대중에게 회향한다는 이 아름다운 절집의 미풍양속마저 ‘장제의무공양금’이 되어 풍사사운 모습 연출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늘어나 또다른 고(苦)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불법의 가르침도 아니고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다른 의미에서 ‘망(亡)은사를 육되게 할 까봐’ ‘미지박 길이니까’ 감히 어느 제자와 ‘없애겠노라’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혜능 선사 유후 이후 또다른 관습의 뿌리는 짙고 깊기만 하다.

“그것은 불법의 가르침도 아니고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다른 의미에서 ‘망(亡)은사를 육되게 할 까봐’ ‘미지박 길이니까’ 감히 어느 제자와 ‘없애겠노라’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혜능 선사 유후 이후 또다른 관습의 뿌리는 짙고 깊기만 하다.

혜능 선사는 열반을 앞두고서 아주 소박하게 장례식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육조 단경)에 나온다. 이 부분 만큼은 ‘동행본’과 ‘역이본’이 별로 차이가 없다.

“잘 잊거라. 이제 그대들과 이별하노라. 내가 입적한 후에 세속적인 인정으로 슬피 울거라, 사람들의 조문이나 공양함을 받거

스승의 유지와 가풍은 가능한 한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조문객도 맞이하지 말고 부의금도 받지 말라고 하였으니 무슨 객비를 나누어 줄 일이 있었는가. 다비장 객비 피해가 심하다보니 종단의 원로 어른들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거의 한계치에 온 것 같다. 어른의 복과 덕을 대중에게 회향한다는 이 아름다운 절집의 미풍양속마저 ‘장제의무공양금’이 되어 풍사사운 모습 연출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늘어나 또다른 고(苦)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타 센터
아빠타 마스터 김해균
전환주시는 본래는 언제든 보시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회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tcenter.co.kr
E-mail: heegyun@avatat21.com

■ 사불수행 지도하는 법인 스님은...

법인 스님(사진)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불교계에 사불수행 바람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고 지난 2002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불수행 시연회’를 불교계 처음으로 개최한 장본인. 이 행사에서는 조계사와 봉은사 신도회, 김장사 청년회가 참가하는 등 사불수행의 대중화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후보인 박정자 씨와 사불수행연구회를 결성했고, 최근에는 서울에 사불전문도량 공덕사(02-2066-8061)를 창건했다.

지난 81년 강원도 원주시 지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서울 금강선원, 서울 동산불교대학, 서울 만해대학 등에서 재가 불자들에게 사불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동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量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황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료)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힘으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원상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금처럼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